



독일 통일 과정 중 교육 현장의 쟁점 및  
독일 경험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Der Vereinigungsprozess  
im Bildungswesen in Deutschland  
und mögliche Implikationen für Korea

대한민국 교육부 주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국제 워크숍

Internationaler Workshop, veranstaltet vom  
Bildungsministerium Koreas und  
dem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2015. 10. 20 - 21  
Großer Saal,  
Holiday Inn Berlin  
- City West

## **프로그램 Programm (2015. 10. 20)**

9:00 a.m. - 9:30 a.m.

### **워크샵 장소 도착 및 접수 Anmeldung**

(홀리데이인 베를린 시티 웨스트 호텔, 컨벤션 홀  
Großer Saal, Holiday Inn Berlin - City West,  
Rohrdamm 80, 13629 Berlin)

### **개회사/ Grußwort**

이진 박사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연구원)  
Dr. Jean Yhee (Institut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 사회 및 통역 (Moderation)

9:30 a.m. - 11:00 a.m.

### **독일 통일 과정 중 교육 현장의 쟁점 및 독일 경험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개관**

Einleitung zum Vereinigungsprozess im Bildungswesen  
in Deutschland und mögliche Implikationen für Korea

### **베르너 페니히 박사(前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원)**

Dr. Werner Pfennig (ehem. wissen. Mitarbeiter im  
Institut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11:00a.m. - 12:00 a.m.

### **토론 / Diskussion**

12:00 a.m. - 1:30 p.m.

점심식사 / Mittagspause

1:30 p.m. - 3:00 p.m.

### **통일 전후 학교 교육 현장 보고-1 (당시 교사 관점):**

**동독의 교사에서 통일 독일의 교육학자로의 여정. 통일  
전후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Vom Lehrer in der DDR zum Bildungsforscher im  
vereinigten Deutschland. Ein kritisch-historischer Rück-  
und Ausblick (Position eines damaligen Lehrers)

### **게어트 가이슬러 교수 (동독출신 교육학자, 독일 국제**

**교육학 연구소 교수) / Prof. Dr. Gert Geißler (i.R.)**

(assoziierter Wissenschaftler am Deutschen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ädagogische Forschung)

3:00 p.m. - 4:00 p.m.

### **토론 / Diskussion**

## 프로그램 Programm (2015. 10. 21)

- 9:30 a.m. - 11:00 a.m.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이 통일 이후 정치  
시민교육에 미친 영향**  
Kulturelle, religiöse und ethnische Vielfalt als Aspekte  
der politischen Bildung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자비네 아슈어 교수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  
Prof. Dr. Sabine Achour (Politikwissenschaft, FU Berlin)
- 11:00 a.m. - 12:00 a.m.      **토론 / Diskussion**
- 12:00 a.m. - 1:30 p.m.      점심식사 / Mittagspause
- 1:30 p.m. - 3:00 p.m.      **통일 이후 학교 교육 현장 보고-2 (당시 학생 관점):  
통일전 동독지역 출생 마지막 세대와 통일 후의 독일**  
Potenziale der Wendekinder – Die letzte Generation der  
DDR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크리스티안 네스틀러 (로스톡대 정치행정학과 연구원,  
동독 장벽세대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Christian Nestle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Uni  
Rostock. Netzwerk ‚Dritte Generation Ost‘)
- 3:00 p.m. - 4:00 p.m.      **토론 / Diskussion**
- 4:00 p.m. - 4:10 p.m      **폐회사 / Schlußwort**  
한국-독일 교원 교류 연수단장  
(Fortbildungsgruppenleiter, Bildungsministerium Koreas)

학술 및 조직 운영 / Organisatorische und wissenschaftliche Leitung:  
이진 박사(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연구원)  
/ Dr. Jean Yhee (Institut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 강연 개요 / Abstracts

### 1. 독일 통일 과정 중 교육 현장의 쟁점 및 독일 경험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개관 - 베르너 페니히 박사(前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원)

정치 시스템과 교육 분야는 서로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이 전체주의 정치 시스템 하에 작동한다고 해도 그 곳에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이나 음악과 같은 분야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하지만 정말 어떠한 분야에서 남북한 간 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북한 교육문화의 어떤 부분이 통일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그 상황이 직접 되어서야 파악 가능할 것이다.

독일 특유의 연방주의 전통은 통일 전후로 교육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전통은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즉 신 연방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과 규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었다.

독일 통일 직후 학교의 교과 과정이 변화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과 학술 기관 전 차원에서 구동독 출신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수반되게 되었다. 특히 하나의 도시에 두 가지 상이한 임금 체계가 존재했고 그 외에도 분단되었던 연방 수도라는 특수한 조건을 지녔던 베를린의 사례도 특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Einleitung zum Vereinigungsprozess im Bildungswesen in Deutschland und mögliche Implikationen für Korea (Dr. Werner Pfennig / ehem. wissen. Mitarbeiter im Institut für Korean Studien, FU Berlin)**

Es gibt einen Zusammenhang zwischen politischem System und Bildungswesen.

Das muss aber nicht bedeuten, dass im Norden Koreas kein seriöser Unterricht erfolgt, z. B. bei Naturwissenschaften und Musik. Es wird später unvoreingenommen zu klären sein, mit wem zusammengearbeitet werden und was erhalten werden kann.

In Deutschland ist das Bildungswesen stark durch das föderale System geprägt, daran hatten sich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neuen Länder zu orientierten. Es waren unterschiedliche Übergangsregelungen erforderlich.

Neben curricularen Schwierigkeiten bereiteten politische Überprüfungen Probleme, nicht nur an Schulen, sondern im gesamten Bereich der Wissenschaften.

Ein besonderer Fall ist Berlin, wo es in einer Stadt unterschiedliche Tarifgebiete gibt und der Veränderungsprozess unter besonderen Bedingungen erfolgte.

## **2. 통일 전후 학교 교육 현장 보고-1 (당시 교사 관점): 동독의 교사에서 통일 독일의 교육학자로서의 여정. 통일 전후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게르트 가이슬러 교수 (동독출신 교육학자, 독일 국제 교육학 연구소 교수)**

본 강연에서 제일 먼저 던져질 질문은 1990 년 독일 통일 이전까지 동독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 동독 국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힘 혹은 지배적 영향력을 지녔었는가의 물음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검토하게 될 사항은 1989 년과 1990 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구 동독 지역 교육분야에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 속에서 진행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교육 연구 분야에서 통일 전후의 전개를 잠시 검토해 본 이후,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현시점에서 구 동독의 교육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당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동독 출신 교사이자 현재 교육학 전문연구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결부하며 소개하고자 한다.

**Vom Lehrer in der DDR zum Bildungsforscher im vereinigten Deutschland. Ein kritisch-historischer Rück- und Ausblick (Position eines damaligen Lehrers) – Prof. Dr. Gert Geißler (i.R.) (assoziierter Wissenschaftler am Deutschen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ädagogische Forschung)**

## **3.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이 통일 전후 정치 시민교육에 미친 영향 –자비네 아슈어 교수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 통일 시점에서 동서독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분단 기간으로 인해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정치 시민교육(Politische Bildung)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통일 시점에서 특히 서독은 1970 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 등으로 인해 이미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진입했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 문제와 다문화사회의 관계를 정치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함께 짚어보는 것은 현재 난민 유입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된 독일의 대처 방식을 검토해본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 닦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성찰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난민 유입에 대해 현재 분단 전 구서독 및 구동독 지역에서 상이한 반응이 나온다는 점은 통일 과정에 대해 재성찰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 시민 교육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진다.

**Kulturelle, religiöse und ethnische Vielfalt als Aspekte der politischen Bildung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 Prof. Dr. Sabine Achour (Politikwissenschaft, FU Berlin)**

Durch Migration, Globalisierung und Mobilisierung werden Gesellschaften immer vielfältiger und heterogener. Dies erfordert auch entsprechende Kompetenzen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im Umgang mit Diversität. Deutschland zeichnete sich im Zeichen der Flüchtlingsströme zum einen durch "Willkommenskultur" und Hilfsbereitschaft aus. Leider fanden aber auch Übergriffe auf Unterkünfte für Flüchtlinge und Gewalttaten statt. Zum letzten Jahreswechsel bewegte das Phänomen PEGIDA die Öffentlichkeit und diffuse Ängste vor "Islamisierung". Dabei ist auffällig, dass solche xenophoben Einstellungen vermehr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so der ehemaligen DDR, auftreten. Die Gründe dafür sind unterschiedlich, hängen aber auch mit den unterschiedlichen politischen System in Ost- und Westdeutschland zusammen sowie dem jeweiligen Verständnis von politischer Bildung (west) bzw. Staatsbürgerkunde (ost) und Bürgerrolle.

D.h., die politische Bildung steht heute vor einer besonderen Herausforderung, Kompetenzen im Umgang mit Vielfalt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zu fördern.

#### **4. 통일 전후 학교 교육 현장 보고-2 (당시 학생 관점): 통일전 동독지역 출생 마지막 세대와 통일 후의 독일 -크리스티안 네스틀러 (로스톡대 정치행정학과 연구원, 동독 장벽세대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통일 전 동독에서 출생했지만 통일로 통일 독일의 체제까지 두 가지 체제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 이중으로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 이들을 독일 통일 전환기 청년세대(Wendekinder)라고 지칭한다. 약 2011 년 경부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 전환기 청년세대 그룹은 공공 담론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에서도 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환기 청년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떠한 특출한 특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특히 왜 21 세기의 통일 독일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동 세대 소속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결부해 소개하고자 한다.

#### **Potenziale der Wendekinder – Die letzte Generation der DDR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 Christian Nestle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Uni Rostock. Netzwerk ‚Dritte Generation Ost‘)**

Die Generation der Wendekinder ist in der DDR geboren aber in beiden politischen Systemen aufgewachsen und sozialisiert worden. Seit 2011 steht sie zunehmend im Fokus der Öffentlichkeit sowie der Medien, weil sie eine Position in der Gesellschaft beansprucht.

Der Vortrag geht der Frage nach was diese Generation auszeichnet, wovon sie geprägt wurde und wieso gerade sie eine Vermittlerrolle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des 21. Jahrhunderts übernehmen kann. Es stellt sich also die Frage des Potenzials der Wendekinder